

Altai 語에 있어서의 補充法에 關한 考察

金 芳 漢

차 례

I. 序 言	關한 考察
II. 印歐諸語에 있어서의 補充法	VI. 알타이 諸語에 있어서의 補充法
III. 補充法의 發生的原因에	V. 結 語

I. 序 論

系統을 날리하는 모든 言語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現象中, 發生的인 面에서 生理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을 區別한다면 本稿에서 考察하려는 補充法은 心理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普通 補充法이라 하던 이 術語는 共時論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本稿에서는 이것을 共時的인 文法論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發生的인 面에서 그리고 이러한 補充法이 알타이語에서는 어떤 範圍에 나타나며 또한 알타이語比較研究에 있어서 補充法을 考慮하므로써 몇몇 難問에 對한 새로운 解決이 可能하게 되는 點을 考察하려는 것이다. 換言하면 알타이語의 比較研究에서 或은 蒙古語의 通時的인 研究에서 從來 未了한 解決을 보지 못한 單數一人稱代名詞에 있어서, 補充法을 考慮에 넣음으로서 새로운 觀點에서 새로운 結論을 얻을 수 있게 되는 點을 考察하려는데 本研究의 主目的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研究를 위해서는 먼저 補充法自體에 對한 研究가 必要함으로 알타이語에서의 그것을 考察하기에 앞서 補充法의 發生的인 面을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本論에 앞서 補充法의 本質的인 面을 고찰하기 위해서 文法論에서 規定된 補充法을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補充法에 關한 定義는 손쉽게 參考할 수 있는 Marouzeau 의 「言語學術語辭典」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Forme propre à remplacer dans une série incomplète ou les formes manquantes: les formes *je vais, tu vas, il va*, sont supplétives dans la conjugation du verbe défectif *aller*.

On a quelquefois appelé supplétif les mots dit plus communément accessoires.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 217)

여기서 不完全系列이라 함은 「活用表에 正常的인 系列의 形態가 全然 없는 齒用語 或은 活用語」를 意味한다(上掲書, p. 69). 여기 對한 가장 좋은 例로는 羅典語에서 比較形과 最上形이 基本形과 全然 다른 *bonus—melior—optimus* 와 같은 形容詞 그리고 英語의 現在形과 過去形이 語源的으로 相異한 *go—went* 와 같은 動詞等を 들수 있다. 그리고 *accessoire* 은 本研究와 直接關聯이 없기에 問題 삼지 않으려 한다.

더 알기 쉬운 定義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Suppletion may be regarded as an extreme kind of internal change, in which the entire base — not merely a part of it — is replaced by another form. (B. Bloch & G.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p. 58)

이처럼 補充法은 文法論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위에서 言及한 것처럼 本研究에서는 補充法을 이러한 觀點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補充法의 發生的인 面을 첫 課題로 삼는다는 點을 다시 強調한다.

다음에는 補充法에 關한 研究의 발자취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補充法의 現象인 印歐語의 單數·人稱代名詞斜格形은 Shleicher 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卽 斜格形 **ma* 는 「생각하다」의 意味을 갖인 動詞語幹으로 보았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存在」를 意味하는 Sanskrit *ma-nu-*, Gothic *ma-n* 이 派生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特

徵은 「생각하는」 能力을 갖인 것이기에 「人問」이라는 名稱이 여기서 派生했고 또한 一人稱代名詞의 斜格形(가령 英語의 I에 對한 my, me) *na도 여기서 派生한 것으로 본 것이다(A. Schleicher: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491 f, 1861).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理論的 比약이 甚하여 또한 民衆語源學의 體臬를 擘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가 一人稱代名詞의 曲用에 나타나는 補充法을, 다만 主格形과 斜格形이 語源을 달리했다는 點만을 漠然히 認識했을뿐, 正當한 視野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곧 알 수 있는 사실이다. 補充法은 다음에 H. Paul에 依해서 認識되었는데, 이 現象을 Suppletivwesen이라는 固有한 術語로 부르게 된 것은 H. Osthoff의 “*Vom Suppletivwesen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99”라는 論文부터라 하겠다. 現在 우리가 Suppletion (Suppletiv; suppletif)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H. Osthoff의 創案한 術語에서 由來한 것임은 勿論이다.

H. Paul는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Zweite Auflage*, s.85, 1886” (言語史原理)에서 名詞를 stoffliche gruppe (資料的群)과 formale gruppe (形式的群)으로 分類하고 다시 資料的語群에서 語源上으로는 다르나 意味上 一致하는 語類를 區別하여 다음과 같은 例를 드렸다. sein ~ werden: hier ~ da: gut ~ besser: bin ~ bist ~ war: ἰδών ~ εἶδον ~ ἔβουμαι (여기 對해서 語源적으로도 同一하며 또한 意味上으로도 一致하는 語類가 區別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H. Paul도 漠然하게나마 우리가 現在 補充法이라고 부르는 現象을 認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H. Osthoff처럼 이것을 文法論에 있어서의 特殊한 範疇로 設定하기까지는 達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 H. Paul에게 미친 Humboldt의 影響이 엿보인다. Humboldt는 Kant의 哲學理論에 依해서 Stoff (質料)와 形式(Form)의 對立下에 言語를 觀察한 것은 그의 言語哲學에 있어서의 한 特徵인바 Paul 또한 名詞

을 *stoffliche Gruppe*와 *forme Gruppe*로 區別하고 다시 Stoff를 Form보다 *priorität*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Paul가 sein ~ werden, gut ~ besser와 같은 系列을 區別한 것은 비록 다음에 論하는 Osthoff의 *Suppletivwesen*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의 出發點은 Kant의 影響에 依한 Humboldt의 言語原理에서 出發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現象이 言語學에 있어서 자리잡아야 할 固有한 位置를 認識하기까지에 達하지는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H. Osthoff는 上掲書⁽¹⁾에서 語源을 달리하면서 意味上 相互關聯이 있고 또 (ich) bin, (er) ist, (ich) binde: (er) bindet, (ich) band와 같이 形態論的으로 並行하는 語類를 *unecht-stoffliche Gruppe* (不純資料的 語群)라하고 다른하나를 *echt-stoffliche Gruppe* (純粹資料的 語群)라했다. 가령 前者의 例로서 雜典語의 *bonus ~ melior ~ optimus*와 같은 것을 들고 羅典語의 比較級・最上級の 一般的인 形成法에 따르자면 應當 *bonus ~ *bonior ~ *bonissimus* (或은 **bonimus*)가 되어 할 것이, 다음과 같이 比較形・最上形에서 語源을 달리하는 變異로 代置하게 된다.

基本形	比較形	最上形
<i>bonus</i>	(* <i>bonior</i>)	(* <i>bonissimus</i> ~ * <i>bonimus</i>)
(* <i>melus</i>)	<i>melior</i>	(* <i>melissimus</i>)
(* <i>optus</i>)	(* <i>optior</i>)	<i>optimus</i>

그러하여 Osthoff는 이러한 現象을 *suppletivwesen* (補充制)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Osthoff도 K. Brugmann과의 共著인 劃期的研究 "*Morphologische Untersu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77*"에서는 아직도 補充法이라는 現象을 認識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

(1) H. Osthoff의 이 論文은 稀本으로 筆者도 直接 볼 機會가 없었으며 다만 小林英夫氏가 紹介한 「補充法について」(言語研究, 問題篇 p. 236—248)에 依했다.

했던 것이다).

補充法은 其後 文法論에서 morphème (Vendrycs의 意味로)의 하나로 登場했으나 이것이 文法論에 있어서 一層 明確한 位置를 찾아하게 된 것은 記述言語學에서가 아닌가 생각되며, 補充法에 關한 研究는 概論程 度의 書籍에서 簡單한 說明이, 그것도 文法論의 範圍內에서 極히 簡單히 說明되고 있을 뿐⁽²⁾, 筆者의 調査에 依하면 Osthoff의 研究를 除外하고 는 補充法自體의 獨自의인 그리고 發生的・本質的인 研究는 全然 없는 것 같다. 이러한 點에서 補充法의 發生的인 面을 考察하고 比較研究 — 特히 蒙古語의 比較研究에 應用해 보려는 것이 筆者가 本稿에서 目的하 는 바이다.⁽³⁾

또한 次기서 아울러 생각해 볼 것은 補充法의 文法論的處理에 있어서 從來에는 이것을 漠然히 morpheme (Vendrycs의 意味로)의 一種으로 보 는데 對해서 一層 分明한 文法論的 意義를 規定하게 된 것은 記述言語 學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補充法에 對한 代表的인 記述言語學的 定義로는 앞에 引用한 B. Bloch & G. L. Trager의 것을 들 수 있다.⁽⁴⁾ 그들은 補充法을 Morphology(形態論)의 morphological process에 넣어서 接合(affixation), 內的變化(internal change), 反覆(reduplication), 零變 化(zero modification)等과 同-하게 다루고 있어서 一見 Vendrycs의 morphème의 概念에 一致하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에는 共通된 點이 없지 않으나 역시 若干의 差異가 있다. 다음에 그들의 說明을 簡單히 살 피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Osthoff가 unecht-stoffliche Gruppe와 echt

(2) L.H. Gray: *Foundations of language*, p. 213—214, 230.

L. Bloomfield: *Language*, p. 215 f., 218, 223, 238 f., 270.

H.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p. 104.

J. Whatmough: *Language*, p. 139.

(3) 特히 蒙古語의 單數-一人稱代名詞의 研究에 適用된다.

(4) 그밖에 E. Hamp: *A glossary of American technical linguistical usage 1925—1950*, p.58 을 參照.

stoffliche Gruppe를 區別하고 前者를 Suppletivwesen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그날도 laugh와 smile이란 動詞는 意味上으로는 明白히 相互關聯 或은 類似性을 가지고 있으나, 英語에 있어서의 어떤 文法範疇에 依히 서 그 關聯性이 表示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補充法으로 볼 수 없다는 點을 明白히하고 있다.⁽⁵⁾

Not every set of words with different bases but a common element of meaning is a suppletive paradigm. The verbs *laugh* and *smile* are obviously related in meaning; but this relation is not expressed by any grammatical category in English: there is, for example, no suffix that can be adduced to a base to modify its meaning in just this way.

그밖에 補充法의 概念을 더 擴大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⁶⁾

There are suppletive affixes as well as suppletive bases. The suffix /-es, -z, -s/ forms the plural of most nouns in English; but the plural of *ox* is formed with the suffix /-ən/, and the plural of *child* with the suffix /-rən/ (accompanied by internal change of the base). The suffixes /-ən, -rən/ are suppletive to the regular suffix -ez, /-z, -s/.

이러한 範圍로 補充法의 概念을 擴大해야 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이 以上 言及하지 않으려 하며 다만 記述言語學에서 비로소 一層 明確하고 正確한 位置가 決定되었는 點만을 附記한다.

또 一面 近來 記述言語學的方法에 依히서 言語變遷의 여러가지 「타일」을 整理한 Hoenigswald의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같은 研究에서도 補充法에 關한 說明이 있으나⁽⁷⁾, 筆者가 여기서 뜻하는

(5) Trager & Bloch: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p. 58.

(6) *op. cit.*, p. 59.

(7) H.M. Hoenigswald: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p. 48 ff., 57, 68, 70.

바와 같은 史的研究에 있어서 補充法을 考慮하려는 點은 없다. 다시 말하면 특히 알타이語比較研究에 있어서 補充法을 살필때 興味있는 새로운 問題點을 얻을 수 있게 된다.

本研究에서 參考로한 語源辭典은 重要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인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略號를 使用하기로 한다.

O. Bloch; *Dictionnaire étymo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32. (略號 BDEF)

A. Walde; *Vergleichendes Wörterbuch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927. (略號 : WVWI)

R. Grandsaignes d'Hauterive; *Dictionnaire des racines des langues européennes*, 1948. (略號 : GDRE)

W. W. Skeat;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24. (略號 : SEDE)

II. 印歐語에 있어서의 補充法

印歐語와 알타이語에 나타나는 補充法現象에서 어떤 共通性을 찾기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共通性에 依해서 알타이諸語의 補充法을 比較研究하며 考慮하기 위하여, 印歐語의 補充形을 語源的으로 詳細히 調査해볼 必要가 있다. 먼저 印歐語에서 補充法이 나타나는 範圍는 大略 다음과 같다(語派 或은 個別語에서는 若干의 差異가 있으나).

1. 動詞 : 주로 現在形과 過去形 或은 現在形과 未來形사이에서.
2. 形容詞 : 基本形과 比較形·最上形 사이에서.
3. 數詞 : 基數詞와 序數詞 사이에서.
4. 代名詞 : 單數一人稱代名詞의 主格形과 斜格形 사이에서.

【1】動 詞

- ① 佛語 aller~(je) vais, (tu) va, (il) va~(j') irai.

aller <*vel-; Lat. el-aunô(自己 앞을 지나다)=Eng. alacrity.

vais <*wadh-(앞을 가다), Lat. vadere, vasum.(=가다)=Eng. evade.

German 語에서는 Eng. wade(徒歩로 <河川等을> 넘다, 진흙속을 걸다), Ger. waten(徒歩로 <河川等>을 넘다, 진흙속을 걸다)等으로 存在하여 佛語에서는 aller 動詞의 活用에서 補充形으로 나타난다.

② 英語 be~is~was.

be <*bher- (=Fr. être); Skt. bhāvati(=it is); Ger. bin, bist. Eng. be, been

is <*es- (=Fr. être); Skt. asti(=it is); Ger. ist, Eng. is

was <*wes- (멈추다, 滯留하다); Skt. vāsati(멈추다, 滯留하다); Grk. astu(=雨); Ger. war, Eng. was.

위에 든 例와 같이 動詞의 現在形에 對한 過去形의 補充形은 語源的으로 보아 現在形과 意味上的 類似差이 있음은 勿論이지만, 그러한 類似形에 立脚하여 어떤 結論을 얻기는 힘들다. 그리고 現在形에 對한 未來形의 補充法은 希臘語의 ἔρχομαι(“가다,” 現在形) : ἐλεύσομαι(未來形)를 들 수 있다.

【2】形容詞(比較形・最上形)

① 佛語 : bon(基本形, ~ meilleur(比較形)

bon <*DWENOS (>Lat. bonus> F. bon, bonté, cf Eng. beauty)

meilleur <*MEL- (豐富하다는 概念, GDRE, p. 121 ff; 強하다, 巨大하다, WVWI, p. 293).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佛語의 bon에 對한 比較形 meilleur 는 印歐祖語에서 「豐富・強大・巨大」라는 뜻을 갖고있던 것이 補充形으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羅典語에서는 melior로 나타남은 앞에 言及한바 있거니와 羅典語에서는 *MEL-이 melior라는 比較形과 同時에 「많은, 풍부한」의 뜻을 가진 mul-tus, 或은 「많이, 대단히」라는 뜻을 갖고인 mul-ton이라는 形容詞로 남아 있다. 또한

*MEL-이 希臘語에서는 「대단히」라는 뜻의 副詞 mala로 남아 있다. (cf. mala: mallon: malista).

다른 例로서 mauvais(나쁜)~pire(더 나쁜)을 比較해 보기로 한다.
mauvais <*BHA-

pire <*PET-(더러지다) Skt. pād-yate(그것이 더러지다), Grk. pi-piō(그것이 더러지다). 이러한 意味의 *PET-가 羅典語에서 「가장 밑바닥에 더러진」이라는 뜻으로 「나쁜」에 對한 最上形 pessimus 으로서 補充하게 되었다고 佛語의 比較形 pire도 여기서 派生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羅典語에서 bonus(좋은)의 比較形은 이미 위에서 論及한 바 있거니와 bonus에 對한 melior가 佛語의 bon에 對한 meilleur와 語源을 같이하며 또한 그 起源的인 意味가 「豊富하다」는 概念을 갖은 낱말이었다. 이와 같이 羅典語의 bonus에 對한 最上形인 optimus는 *op-에서 變遷한 것으로서 *op-는 起源的으로 「行動에 依한 所産」이라는 뜻으로 이 낱말이 羅典語에서 ① opes(plu. 豊富·富)라는 名詞와 ② opulentus(豊富한)라는 形容詞 그리고 ③ optimus라는 最上形으로 派生되었다. optimus는 마치 melior가 「豊富」하다는 概念을 지닌 말로써 比較形으로 補充된 것과 같이 또한 同一한 概念의 낱말로써 最上形으로 補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bonus에 對한 補充形인 melior와 optimus는 發生的으로 類似한 概念上的 關聯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② 英語의 good~better~best는 A.S.에서는 god~betera~betost, Goth에서는 göd-s~bat-iza~bat-ist-s에 對應한다. 그리고 Goth.의 bat-는 原來 「肥大해지다, 살 찌다」라는 뜻의 batten이라는 動詞의 過去分詞形 böt-에서 派生한 것으로서 böt-는 「좋다·有益하다」의 概念을 表示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좋은」에 對한 比較形·最上形으로 補充되었다.

【3】數 詞

數詞에서는 基數詞라 序數詞 사이에 補充法이 이어나는데, 于先 古典

語에서의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數詞	言語名	梵語	希臘語	羅典語	Gothic
序數 1st		pra-thama	πρω-το-(s)	pri-mo-(s)	fru-ma-n (*<pra-ma-n)
序數 2nd		dvi-ti-ya-	εβ-τερο-(s)	sec-undu-s cf. sec, seq (sequi)	antnar (<*ama)
基数 1			εἷς	un-us	ains
基数 2		duvá	δύο	duo	twai

위 圖表에 依하면 同·한 印歐語族에 屬하면서도 梵語와 希臘語에서는 補充法이 序數詞 1에서만 이러나고 2에서는 이러나지 않으며 羅典語와 Gothic에서는 1, 2에서 各各 補充形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其數詞 1은 語源的으로 「單一의」 또는 「唯一한」의 뜻을 갖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對한 序數詞는 各個別語에서 prV-라는 共通的인 語根을 保有하고 있다. 이것과 同語源인 希臘語의 πρῶ, πᾶρος, 그리고 梵語 pūrva-가 各各 「앞」이라는 뜻으로 使用되고 있음으로, 序數詞의 語根 prV-도 起源的으로 「前, 前方」이라는 뜻으로 使用되었으리라고 본다. 여기 對해서 K. Brugmann 은 다음과 같은 起源的인 意味를 說明하고 있다.

Erster. Die Formen bedeuteten ursprgl. 'voran befindlich, vorderster' oder 'frühester'. (Brugmann: *Kurz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903, s. 307)

그리고 이 語形은 *PER-로 再構된다. 가령 알기쉬운 英語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first <I.E. *PER-임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first 는 fore(앞에)의 最

上級形인 fyrsta에서 變遷한 것이다.⁽⁸⁾ 英語의 first에 對應하는 낱말이 獨語에서는 「山봉오리」라는 뜻의 First, 또 「王子」라는 뜻의 Fürst로 使用되고 있다. 이처럼 序數詞 1은 起源的으로 「가장 앞의」或은 「맨처음의」라는 뜻을 갖은 낱말이 補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圖表를 보면 序數詞 1은 大體로 印歐語族의 各個別語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데 對해서 序數詞 2는 言語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序數詞 2의 補充形은 發生的으로 序數詞 1의 補充形 보다 뒤에 形成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補充形으로 나타나는 序數詞 2는 印歐語族에서 大體로 두가지 種類로 區別할 수 있다. 하나는 羅典語의 sec-undu-(s)가 代表的인 것이고, 둘째로는 Gothic의 anthara가 代表的인 것이다. sec-undu-(s)는 印歐祖法 *SEKw-(*SEqu-, WWVI p. 476)에서 派生한 것의로서 *SEKw-는 「뒤따르다」라는 뜻을 表示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羅典語의 sequi, secutus, 希臘語의 hepomai, 佛語의 suivre(⟨sivre) 등은 全部 *SEKw-에서 派生한 것이며 「따르다」라는 同一概念을 갖고 있다. SEDE에 依하면 容易하게 알 수 있다.

Empruntés du latin *secundus*, proprement “suivant” (de *sequi* “suivre”) *secundarius* “qui est de second rang,” *secundare* “favoriser, aider”; au XVI^e siècle et au XVII^e siècle *seconder* signifiait aussi “venir après, suivre” d’après *second*. (p. 262)

이처럼 로만스語系統에서는 「첫째」 것에 따르다라는 뜻으로 「따르는」이라는 낱말이 2의 序數詞로 補充된 것이라 하겠다. 英語의 first에 對한 second가 佛語에서 借用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8) M. Kaluza: *Historische Grammatik der Englischen Sprache*, p. 225.

여기 對해서 다른 하나의 補充形은 Gothic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型이다. Goth. *anþar*는 起源的으로 指示代名詞語基 *ana*에서 派生한 「다른」 或은 「다른 하나의」를 뜻하던 것이며 이것은 「첫째」 것에 對해서 「다른 하나」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 同一한 補充形이 리투아니아語의 *antras*, 古代敎會斯拉브語의 *vŭtorŭ* 等이다.

위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序數詞 2는 (1) 「다른 하나」 (2) 「다음에 따르는」 (3) 正常的인 序數詞形成語尾를 갖는 세가지 種類가 있으며 이것은 序數詞 1 보다 그 形成法이 若干 多樣性을 띠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또한 古代英語의 그것의 關해서는 M. Kaluza: *Historische Grammatik der Englischen Sprache*, Bd. 1, s. 225 參照.

【4】 代名詞

一人稱代名詞의 主格形은 *EGO~*EG(H)OM(WVWI, s. 236)에서 Skt. *ahám*, Grk. *egō*, Lat. *ego* (>Fr. *je*), Goth. *ik* (>Eng. *I*) 等으로 變遷한것음을 알 수 있으나 그 斜格形은 *EGO-와 全然 語源을 달리하는 *ME-~*MO-로 再構된다. 그러나 *ME-~*MO-에 關한 起源的인 意味는 把握하기 어려운듯 GDRE. p. 119 에는 *moi* (accus), *mon*; WVWI, s. 236 에는 *mir*, *mich*, *usw* 程度의 漠然한 意味밖에 提示되어 있지 않다. 생각컨데 主格形에 對한 補充形으로써의 斜格形은 다른 例와 같이 意味上的 聯關은 있을당정 역시 意味上的 差異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補充된 *ME-의 祖語時代에 갖고 있었던 固有한 뜻을 現在로선 正確하게 把握하기가 힘들다. 또한 主格形自體에 關해서도 Brugmann 은 *Der uridg. Ausgang ist unklar, zuletzt darüber Schmidt KZ. 36, 405 ff.*라고 말하고 있다.⁽¹⁰⁾ 따라서 *ME-에 對한 Schleicher 와

(9) 여기 關해서는 K. Brugmann; *Kurz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1903, s. 370 參照.

(10) *op. cit.*, p. 410.

같은 神秘로운 解釋이 나오게된 것으로 생각된다.

Schleicher considers this *ma*, 'ego' identical with the verbal root *ma*, 'to measure, to think,' a root from which is also derived 'man', Sansk. *ma-nu-*, Got. *ma-n*, i.e. the being that 'thinks'; a very appropriate term for individual self-assertion, quite as distinct as, and far more concise term, the well known 'cogito, ergo sum' of the scholastic school. (J. Helfenstein: *Comparative grammar of the Tutoic languages*, p. 180 f.)

Osthoff 는 위와 같은 例以外에 또한 다음과 같은 種類를 드렸다. Gott.~Göttin, König~Königin 과 같이 -in 에 依해서 男性形에서 女性形을 形成하는데 對해서 *bruder*~*Schwester*, *mann*~*Weib* 와 같은 血族名稱, *Ochse*~*Kuh*, *Boch*~*Geiss* 와 같은 人間과의 關係가 깊은 家畜名 등의 男性語와 女性語 까지도 補充法으로 보았다.

여기 對해서는 一考의 必要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Bruder* 에 對한 *Schwester* 는 補充形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Schwester* 는 祖語 **SWES*-에 遡及할 수 있으며 **SWES*- 自體가 「姉妹」라는 意味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Skt. *svásar*, Lat. *soror*, Goth. *swister*) Ger. *Schwester*, Eng. *sister*). *Mann* 에 對한 *Weib* 의 起源形은 祖語의 **WEIP*-이며 이것은 古代高地獨語에서 *weibōn*~*weipōn* 의 「흔들리다, (소리나 마음이), 주저하다」等を 意味하는 動詞에서 派生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에서 考察한 代名詞・序數詞・動詞 등에서 나타나는 補充形과 同一視할 수 있을까? 英語에서는 *wife*(<Goth. *weibōn*)에 對해서 *husband* 라는 名稱이 Scandinavia 語를 通해서 借用되었 으며 古代英語 *hūsbonda* 는 「집」을 뜻하는 *hūs* 와 「居住」를 意味하는 *bōnd* 와의 複合語 인은 周知의 事實인바 이것을 또한 *wife* 에 對한 補充形으로 볼 수 있는가——여기 새로운 問題가 이리난다. 卽 Osthoff 지립 *Mann*~*weif* 까지 를 補充法으로 본다면 文法論에 있어서의 位置設定에 있어서 混亂이 이

러나지 않을 수 없게되며 또한 男性名稱에 對한 女性名稱이 마치 動詞의 現在・過去・未來등의 規則적인 活用形과 同一하게 -in 으로 形成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引用한바 있는 Bloch와 Trager의 定義와 같이 範圍를 더 좀 嚴格하게 限定할 必要가 있다. 例컨대 laugh와 smile은 確實히 意味上的의 關聯性은 있으나 그 關聯性이 「어떤 文法 範疇에 依해서 表示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語幹에 이면 接尾辭를 接尾시켜서 그 意味를 變更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補充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Bruder에 對한 Schwester, Mann에 對한 Weif도 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女性形을 形成하는 -in을 動詞의 規則적인 活用形 或은 形容詞의 規則적인 比較 最上形의 語尾 그리고 序數詞形成의 語尾와 同一視하기 困難하기 때문이다. 理由는 -in이 다른 正常的인 補充法이 이룰 수 있는 系列의 語尾처럼 普遍的인 것이 아니라 그 用法이 極히 制限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Mann: weif 따위까지 補充法으로 본다면 그 限界가 너무나 漠然해서 것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Bruder에 對한 Schwester, 그리고는 Mann에 對한 Weif 따위는 補充法의 限界規定에 있어서 困難한 一面을 提示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을 語源的으로 前者가 이미 祖語에서 *SWES-라는 「姉妹」를 뜻하는 낱말로 使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果然 補充形인지를 判斷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또한 Bruder: Schwester를 補充法의 關係로 본다면 Vater와 Mutter, Onkel까지도 같은 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混亂을 避하기 위해서는 이 範圍를 限定해야 할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 Bloch와 Trager 처럼 補充法을 形態論에 있어서의 morphological process 或은 Vendrye 式의 morphème의 一種으로 보는 것이 便利할 것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規定은 scheme이라는 用語의 概念을 一層 正確・嚴格하게 限定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活用・曲用の 例를 除外하면 基數詞의 序數詞의 關係를 어떻

게 規定하는가에 混同이 이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Scheme에 있는 形態와 다른 basic word에서 派生할」의 概念이 너무 漠然하기 때문이다.

A form used to replace a missing form in a defective (q.v.) conjugation or declension, and derived from another basic word than the existing forms in the scheme. (M. Pei & Gaynor: *Dictionary of Linguistics*, p. 208)

또한 이 規定에 있어서 basic word 或은 missing이라는 概念도 極히 漠然한 表現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 筆者는 補充法의 限界를 活用과 曲用에서 補充되는 것 그리고 序數詞와 같이 一定한 規則的인 形成法에서 그다지 하나 둘만이 다른 法로 補充된 것만으로 좁히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Vendryes가 말하는 morphème의 概念을 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Bloch와 Trager 들 처럼 suppletive affix 라는 것을 認定할 必要가 있는가도 興味 있는 問題가 될 수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이 以上 言及하지 않으려 한다. (11)

Ⅲ. 補充法의 發生的原因에 關한 考察

補充法의 發生的인 原因에 關해서는 앞에 例示한 바에서 暗示를 얻을 수 있을 程度로 이것이 心理的 或은 意味論的인 面에서나 社會學的 或은 文化人類學的인 面에서 多角度的 考察이 必要하다. 그러나 여기 關해서는 아직 뚜렷한 結論이나 혹은 이 問題를 主題로 삼은 研究가 없기에 筆者의 愚見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B. Malinowski는 그의 有名な 論

(11) 이러한 여러 現象의 發生的인 原因은 다음章에서 總合的으로 다루기로 하고 本章에서는 여러 現象을 個別的으로 提示했다.

文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s”⁽¹²⁾에서 未開人の 言語에는 意味에 關한 複雜한 現象이 許多하게 나타남으로 이러한 未開人들의 言語表出을 分析하여 言語에 있어서의 意味의 本質적인 面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主題가 同論文의 目的인 것이다. 그는 여기서 言語는 原始的인 機能에 있어서 思想의 模寫記號(counter-sign of thought)나기 보다는 動作의 樣式(mode of action)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 未開人들의 複雜한 言語場面(complex speech-situation)을 解剖하여 여기서 言語의 本質적인 機能을 把握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動作의 樣式」이나 또는 「言語場面」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가 提示한 다음과 같은 例를 보면 充分할 것이다⁽¹³⁾. In order to achieve the spatial and temporal definition which we obtain by using the past definite tense, the native have recourse to certain concrete and specific expressions. Thus in the case quoted, the villagers, in order to convey the fact that the canocs had arrived, would used the word *to anchor, to moor*. “They have already moored their canocs”, *boge aykotasi*, would have meant, what I assumed they had expressed by *boge laymayse*. That is, in this case the native use a different root instead of a mere grammatical modification. New Guinea의 Trobriand 群島에서 使用되는 Papuo-Melanesian 語에서 같은 이 例는 Malinowski가 기록 이러한 現象을 言語學的인 意識下에 補充法으로서 다룬 것은 勿論 아니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現象이 前章에서 說明한 英語의 go-went 과 同 한 것임을 알수 있다. 「카누」가 왔다는 過去를 表示하기 위해서 島民들의 言語는 「오다」라는 語幹 [-ma-]에 다 文法的인 接尾辭・接頭辭 같은

(12) C.K. Ogden & I.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Supplement I, p.206—336.

(13) *op. cit.*, p. 304.

것을 添加해서 使用하지 않고 다만 「-ma-」와 뜻을 全然달리하는 「-ko-」(投錯하다, 變位하다)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Malinowski가 強調하는 것은 言語의 原始的機能은(우리에게 便利하게 말을 바꾸자면 -ma-에 對한 -ko-의 補充法은), 「-ko-」라는 말이 使用되는 speech-situation을 考察해야한다는 點이다. 그들에게는 「카누-」가 「온다」(現在形)라는 概念과 「카누-」가 왔다(過去形)라는 概念은 單純한 時間概念을 떠나 다른 心理狀態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水平線上에 「카누-」가 보이기 시작해서 「카누-」가 現在 오고 있다는 事實은 「온다」라는 單純한 現在的인 事實이다. 그러나 水平線上에 보이기 시작해서 「카누-」가 섬에 到着하기까지는 아직도 距離가 멀고 또한 危險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카누-」가 섬에 到着해서 닻을 내렸을때 비로소 그들은 無事히 왔다는 것을 느끼게된다. 이러한 心理狀態에서 「온다」와 「왔다」라는 概念의 時間을 떠난 새로운 概念이 介在하게되며 補充法으로 發展하게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기에 Malinowski는 speech-situation을 解剖하고 mode of action을 (가령 “카누-”가 왔다는 概念이 “投錯하다”라는 낱말로 表示되는 바와 같이) 考察함으로써만 言語의 本質的인 機能을 理解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言語의 意味는 이와 같은 點에서 考察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事實上 이와 같은 Malinowski의 見解가 近來 意味論에까지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¹⁴⁾ Malinowski의 研究에서 우리는 補充法研究에 關해서 여러가지 暗示를 얻을수 있고 또한 方法論的인 面에서도 얻은바 크다. 그러나 더 좀 具體的인 것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다른 角度에서 考察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Levy-Bruhl의 “Les fonctions mentales dans

(14) London大學의 Firth를 中心으로한 言語研究는 近來 異彩를 띠우고 있으며 Firth의 Semantics도 Malinowski의 理論이 主流가되어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les sociétés inférieure”에서 注目할만한 많은例와 暗示를 얻을수 있다. L. -Bruhl의 所論中 本研究에 必要한 것으로서 다음에 引用하는 例文가 앞에서 要點을 把握할 수 있다.

或은 具體的表現의 要求, 或은 行爲, 主體, 客體의 細密한 特徵差別 表現하는 形이 許多하게 있다는 것이, 劣等型의 社會에서 使用되는 大多數의 言語에 共通된 特徵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特徵은 우리들이 그들 社會에 特有한 心性이라고 부르는 것中 어느 것에 對應하는가를 무려볼수 있게된다. 이 心性이란 기이 抽象化되지 않은, 더우기 그것을 行動할때 論理的思考가 行해지는 것과는 다르게 行해진다. 그것은 同一한 概念을 使用하지 않는다. 그것을 一層 明確히하고 그 心性에 依해서 使用되는 材料 卽 이들 言語의 語彙를 調査하여 그것이 行해지는 實證的인 여러 暗示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問題가되는 것은 「具體的表現의 要求」나, 「具體的表現」이라함은 概念의 抽象化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事事件件을 하나 하나 個別的으로 表現하려는 傾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으로 가장 뚜렷한 것이 위의 引用文에서도 볼수 있는 것과 같이 主體와 客體에 關한 것이다. 가령 一人稱代名詞의 「나」가 어떤 動作의 主體者일 때와 또 어떤 動作의 影響을 받을 때는 心理적으로 兩者間에 概念的 差異가 생기어서 自然히 이것을 各各 個別的으로 表現하려는 結果를 갖어오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二章에서 例示한 것과 같이 印歐諸語나 或은 其他여러 言語에서 一人稱의 主格形과 斜格形的이 相異한 語幹으로 形成되어 있다는 事實로서도 알수 있다. 다시 말하면 未開社會에서 概念의 抽象化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기서 個別的表現이 나오게되며 이것을 端的으로 立證하는 것이 代名詞나 或은 比較形의 例라 하겠다. 그리고 Papuo-Melanesian 語의 例와 같이 概念의 抽象化以外에도

여러가지 複雜한 要因이 介在되어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個別化 或은 特殊化는 言語研究에도 어려모로 暗示를 던지준다.

印度의 北東部에서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抽象的인 「아버지」는 어느 程度의 抽象的인 思考가 必要한 觀念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낱말을 「구기·친」語에서는 決코 單獨的으로는 使用되지 않고 언제나 所有代名詞와 더불어 使用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손(手)은 어떤 사람에게 屬하는 것으로서만 表現된다……勿論 名詞가 所有格의 다른 名詞로 決定 되어 있을 때는 所有代名詞가 必要하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特殊化의 傾向때문에 主名詞에 所有代名詞를 追加해 놓은 것이 보인다. 「나의 어머니의 그녀의 손」 따위와 같은 種類인 것이다. 이런 傾向은 비단 補充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蒙古語等 Atai諸語에서 볼수 있는 反照所有接尾辭로 表現되는 것에서도 볼수 있다.

여기서 또한까지 생각할 것은 위와는 다른 種類의 個別化다. 가령 우리가 抽象化된 概念에 依해서 類別하는데 對하여 이러나는 個別化를 그들 言語에 있어서의 一般的傾向이라 할수 있다면 다음에는 廣範圍한 社會的인 要因에 依해서 나타나는 個別化의 傾向이다. L.-Bruhl은 이러한 例로 Lapon 族에게 사슴의 名稱에 生後一年이된 것부터 8년이된 것까지 各各別個의 呼稱이 있다는 것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例로는 蒙古語의 馬에 關한 여러가지 名稱을 들수 있다. 이것은 勿論 이런 社會的인 必要性, 或은 遊牧生活의 必要性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種類의 各名稱이 正常的인 補充法이 될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以上 論한바를 要略하면, 古代人들의 概念의 抽象化가 不完全하기 때문에 여기서 個別化된 具體的인 表現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具體的인 表現이 Malinowski가 強調한 것처럼 「動作의 樣式」에 依해서도 뚜렷히 나타난다. 이러한 現象이 오늘날 우리가 여러 言語에서 찾아

볼수 있는 補充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補充法의 發生的인 要因은 古代人들의 概念의 非抽象化에서 비롯된 個別的이며 具體的인 表現의 慾望에서 찾아 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특히 序數詞나 一人稱代名詞의 斜格形을 생각할때 容易하게 理解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見地에서 볼때 Malinowski가

Language, in its primitive function, to be regarded as a *mode of action*, rather as a countersign of thought.

리하여 言語의 原始的 機能을, 특히 意味를 廣範圍한 contexts of verbal utterance에서 찾아야한다는 說에 興味를 느끼게되는 것이다.

Ⅵ. 알타이語에 있어서의 補充法

알타이諸語에서는 앞에서 考察한 印歐語에서 처럼 補充法이 比較的 廣範圍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序數에서는 共通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土耳古語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古代土耳古語에서는 基數詞의 bir에 對해서 序數詞는 bastınqı 인마 이것은 「머리, 첫, 시작」등을 意味하는 baš에서 派生한 것이다.⁽¹⁵⁾ 이밖에 土耳古語의 各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形態로 나타나는바 같은 言語의 方言에서 1의 序數詞가 몇몇 相異한 語로 나타나는 點은 興味있다.⁽¹⁶⁾

uig. baš-tyinky

čuv. mal-Dan-Xi

jak. bas-ta-ky

Jak. burunggu, magnajgy

krq. baš-ky

kaz. ələkə (<il-)

먼저 uig. jak. krg. 에 서는 古代土耳古語와 같은 baš로서 形感되어 있는데,

(15) A von Gabain: *Alttürkische Grammatik*, p. 104, 301.

(16) Jussi Aro: *Materialien zur Morphologie der türkischen Sprachen*, p. 28 f. (Studia Orientalia No. XXI)

čuv.에서는 mal (=앞)⁽¹⁷⁾, Jak.에서는 buruŋ(-코앞)⁽¹⁸⁾, kaz.에서는 əl(⟨il-앞)⟨⁽¹⁹⁾ 로서 形成되어 있다. 여기서 印歐語에서 序數詞 1 이 「前, 前方」등을 表示하는 語로 補充되어 있는 事實을 생각하면 確 興味를 도 꾼다.

通古斯語에서⁽²⁰⁾.

① 序數詞 1.

滿洲語에서는 基數詞 1 인 emu 에 對한 序數詞로 uzu 가 있으며 uzu 는 「머리, 시작, 발단」등을 意味하는 語였으며 이밖에 emu-ci 도 보인다 이것은 -ci 에 依한 2 以上の 序數詞形成法에 따른 類推에 依한 것이라 하 겠으며 이와 같은 것은 蒙古語에도 보인다.

Gol.에서는 zuluŋ, züləzimə 로 나타나는바, 이것은 go. 의 zulia (=앞에 있는)와 比較된다. negl.에서는 ŋogu(-nin)로서 直譯하면 「앞에 스는」 이라는 뜻이 되며 이 補充하는 語의 意味는 滿洲語나 Gol. 과 같다. Ew. Lam.에서는 nonpt, nonap, ŋogop-an 으로 나타나는바 이것은 「시작하다」 를 意味하는 nono-에서 派生한 것이라 하겠다.

② 序數詞 2.

滿洲語에서는 類推에 依한 zuwe-ci 외에 žai 가 있으며, go. 의 zea 는 「...에 뒤따르는」라는 意味에서 轉用되었으며, negl.의 gē-nin 은 「한쪽」 즉 「둘중 하나」라는 뜻으로 「첫째」와 「둘째」中의 「한쪽」 또는 「다른 하나」 라는 意味에서 轉用된 것임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意味에서의 轉用은

(17) Mal-Dar-Xi, -Dan 은 Abl. Case ending, -Xi 는 Adj. 形成語尾.

(18) Buruŋ-gu 의 -gu 는 adj. 形成語尾. Jak.에는 이밖에 magnajy 라는 語가 있 어 같은 序數詞로 使用되고 예는바, magnajy 는 「이미」를 意味한다.

(19) əl-kə 의 -kə 는 adj. 形成語尾. əl-은 「앞」을 意味하는 「il」의 變形.

(20) 通古斯語의 諸例는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s. 104 f.에 依함.

(21) L. Ambis; *La grammaire de la langue mongole écrite*, p. 38 에 依하면 序數 詞 1로 angqa 라는 語가 보인다. (Remarque: On emploie parfois à la place de nigätä'är le substantif angqa, "le commencement"——nigätä'är 은 analogy 에 依해서 形成된 것).

印歐語에서도 同一한 例를 찾아 볼수 있다. (cf. Gothic; anthara). Ew. Lam. udh 에서는 各各 gē, gē(gē-tan), gagda-ni 로 나타나며 gē 는 naged 의 gē 와 같고, Udh. 의 gagda 는 Lam. 의 gad 와 比較되는데, 이것은 「한雙中의 하나」의 意味에서 轉用된 것임을 알수 있다.

蒙古語에서.

基数詞 1 의 nigen 에 對해서 terigün 이 使用되는데 原뜻은 「머리, 시작」을 意味하는 것이었고 2 (qoyar) 에 對한 序數詞로는 ded, nöküge 가 있는데 前者는 「다음 것」, 「파르는 것」을 그리고 後者는 「…에 뒤따르는 것」을 意味하는 것에서 轉用된 것이다.⁽²¹⁾

國語에서.

國語에서는 唯一한 補充法例로 「하나」에 對한 「첫째」가 나타나는데, 이 「첫」의 語源은 不明이다.

蒙古語의 單數一人稱代名詞의 斜格形에 나타나는 補充法은 가장 興味 있는 것으로서 本稿에서 詳細하게 다루고 저하는 部分이다. 먼저 書寫 蒙古語에서 單數一人稱代名詞 bi 의 斜格形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²⁾.

Nominative	bi	Ablative	namača, nadača
Genitive	minu	Instrumental	namabar, nadabar
Dative-Locative	nadur	Comitative	nama-luʻa
Accusative	namayi		

위와 같은 曲用에 있어서 主格形 bi 에 對해서 屬格形으로 mi-(n)u, 그 밖의 斜格形으로 nama- 의 相異한 語幹이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서 bi 에 對한 mi-(n)u 는 大體로 binu > minu 와 같이 보는데 意見이 一致하고 있다.⁽²³⁾ Ramstedt 는 最初 屬格形以外의 nama- 가 主格形 bi 에서 變化

(22) cf. G.J. Ramstedt; *Über mongolische Pronomia*, JSFOu. XXIII.

(23) Selbst der Stamm * nam- in nandur ist wohl eine Neubildung und beruht, soviel ich bis jetzt haben finden können* auf einer Anlehnung an nama-; nach allen Regeln sollte man ja *min-dur, *ninda (-mandschurisch minde, tür. lok. men-de) erwarten. (Ramstedt: *Über mongolische Pronomia*, JSFUo XXIII 8. s. 8)

한 것으로 보았다. (24) 그러나 다음에는 na-ma가 *mima(<bi-ma)에서 異化한 것이 아니고 斜格形에서 屬格形으로는 *min, 그밖의 形으로는 *na의 相異한 두語幹이 있었다고 본다.

Mo. na in nadur, nada (MNT) 'to me', MoL, namadur, namadu, abl. namaca, acc. namaji, Kalm. nanda 'to me'. *The Mo. nama as stem is probably *na-ma, not a dissimilated *mima*, the old Mongolian has had two stems, *min and *na. (Ramstedt; *Korean etymology*, p. 156)

Ramstedt가 위와 같이 보는데 對해서 Poppe는 두가지의 可能性을 指摘했다. (25) 그는 nama-에서 -ma-를 jaɣuma 나 jama의 -ma와 同一한 것으로 보고 이 *na-는 Ramstedt가 생각한 것처럼 國語의 「나」에 一致할 수 있다는 可能性과 또 Muqaddimat al-Adab에 對格形으로서 minaji, 奪格形으로서 nidāsa와 같은 語形이 보이기 때문에 이 語形이 萬一 Muqaddimat al-Adab의 著者의 誤記가 아니라면 *nama는 (*nima-<)*mina로 볼 수 있다하여 다음과 같은 可能性을 指示했다: 主格 bi, 屬格 min<*bin, 其他斜格形 nama<*ni-ma<*mima<*bima. 前者의 可能性에 對한 意見은 結局 Ramstedt의 後期意見에 結果적으로 一致하다. Poppe는 結局 두가지 可能性만을 指示했다고 볼 수 있는데 筆者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먼저 -ma-를 考察하기 前에 2人稱, 3人稱과 比較하며 1人稱의 曲

(24) 拙稿「알타이」語 一人稱代名詞攷(서울大學校論文集·第七輯 p. 319 ff.)參照.

(25) The origin of the stem *nama is not quite clear. It is possible that -ma- is the same element as in Mo. jaɣuma 'something', MMo. jama id., etc. and *na is identical with Korean na 'I' as Samstedt believes. On the other hand, in Muqaddimat al-adab the accusative form minaji and the ablative form nidasa occur. If they are not due to an error of the author of that old dictionary, *nima<*mima. In this case the following scheme can be established: Nominative bi, Genitive min<*bin, in the remaining cases stem nama<*nima<*mima<*bima.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MSFOu 110, p. 211 f.)

(26) Poppe; *op. cit.*, p. 212 f.

用을 보기로 한다.¹²⁶⁾

1) 1st personal pronoun;

	Nom.	Gen.	L-D.	Acc.	Abl.	Instr.	Com.
CMO	*bi	*mini	*namadu(r) *nadu(r)	*namaji	*nadaca	*namabar	*namaluŕa *namatai
MO	bi	minu	nadur	namaji	namaca nadaca	namabar	namaluŕa
MMO			+/-	+	ϕ/--	+/ϕ	ϕ
DAG			+/-	+	+	+	+
MONG			-	-	-	-	-
MOG			+	-	?	?	ϕ
URD			+/-	+	-	+/-	+/-
KH			-	+/-	-	-	-
BUR			-	+	+	+	+
KALM			+	+	+	-	+

2) 2nd personal pronoun;

MO	Nom.	Gen.	L-D.	Acc.	Abl.	Instr.	Com.
	ci	cinu	cimadur	cimadu(r) cimada	cimaji	cima-aca	cima-liŕa

3) 3rd personal pronoun;

MO	Nom.	Gen.	L-D.	Acc.	Abl.	Instr.	Com.
	-i(suffix)	inu	imadur	imaj	imadaca	imaŕari	imaluŕa

(-는 -ma-가 나타나는 것, --은 나타나지 않는 것, +/-은 兩形이 있는 것, ϕ/--는 -ma-가 나타나지 않는 語形만 있는 것, ?/ϕ는 -ma-가 나타나는 語形만 있는 것을, ?는 不明임을 各各 表示한다)

위의 表를 보면 -ma-가 비단 一人稱代名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3人稱辭格形에서(屬格形除外) 共通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特히 各方言形을 보건데, 中期蒙古語에서 처럼 同一한 -ma-가 恣格과 具格에서는 서로 對立的으로 나타나며 또 興處格에서는 兩形이 同時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때 우리는 이 -ma-가 na-와는 別個의 要素임을 알 수 있다. 特히 3人稱代名詞의 語幹은 *i- 인바 여기에 -madur(L.-D.); -maji(Acc.); mada a(Abl.); -maŕari(Instr.); -maluŕa(com.)

等이 添加되어 있음을 볼때이 -ma-가 斜格形形成에 있어서 共通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要素임을 알수 있다. 다만 이 -ma-가 Poppe가 提示한 可能性처럼 jaγum 나 jama의 -ma-와 果然 同一한 것이나 아니냐에 對해서 或은 그밖에 斜格形形成要素로서 어떤 特殊한 接尾辭인지는 遼斷을 不許하나, 적어도 이 -ma-가 特히 一人稱代名詞의 斜格形에만 固有한 것이 아니며 na-, (1人稱), či-(2人稱), i-(3人稱)와 別個의 要素로 보아야함이 當然한것이다. 그리고 可能性으로 본다면 이 -ma-는 jaγuma 나 jama의 -ma와 同一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斜格形形成에 必要한 要素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1人稱代名詞의 固有한 斜格形語幹을 *na-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Poppe가 指摘한 Muqaddimat al-Adab의 例도 確實히 興味를 도우기는하나 이 一例만으로 全體를 遼斷할수는 없을것 같다.

끝으로 또한가지 생각할 것은 Ramstedt의 最初意見이나 Poppe의 두번 재 可能性과 같이 nama<*nima<*mima<*bima 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니 이것은 所謂 “breaking of i”가 이 語에 限해서만 古代蒙古語에서 이미 이러 났을까 하는 疑問이다.⁽²⁷⁾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 可能性이 가장 높다. 卽 屬格形을 除外한 諸斜格形의 na-는 그것이 主格形인 bi를 形 餘으로한 變形된 曲用形이 아니라 原始蒙古語(Urnongolisch)에서는 單 數 一人稱代名詞에 *bi와 *na-의 두 語幹이 있었고 이 *na-는 *bi에 對 한 補充形으로 볼수 있다. 從前에는 漠然히 單數一人稱代名詞에 두 語幹이 있다—그렇게만 말해왔기에 여러가지 異說이 나오게 되는데

(27) Breaking of “i”에 關해서 여기서 再論의 必要도 없으나 그것이 겨우 中觀 蒙古語에서 이러나는 現象임을 말해준다. Poppe는 中期蒙古語의 特徵을 說明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項目을 드렸다.

c) The “Breaking of *i and the development of *e into a rounded front vowel has only started.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p. 16). cf. *ibid.*, p. 36.

筆者는 이것을 卽 bi에 對한 na-를 補充法에 依한 것으로서 解決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斜格形의 이 na-가 補充法에 依한 것이라면 當然히 主格形인 bi와도 意味上으로는나 或은 心理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對面하는 새로운 難點은 na-의 語源이 밝혀지지 않는 點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蒙古語의 na-와 國語의 「나」를 比較해 봄으로서 特히 兩者間의 形態的 意味的一致에 依해서 우리는 國語의 na가 蒙古語의 na-와 同一한 것임을 알수 있고 또한 蒙古語에서는 國語의 na에 該當하는 na-가 補充法에 依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수 있게 된다.

그러면 蒙古語의 이런 現象을 어떻게하여 補充法으로 볼수 있는가? 여기 最後의 問題가 남아 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이리 第2章에서 印歐語에서 이러한 補充法을 廣範圍하게 考察했거니와 우리는 筆者가 例示한 印歐語의 例 그리고 Malinowski와 L.-Bruhl의 例에 依해서 補充法은 古代人에게 共通된 心理狀態에서 言語에 反映된 것임을 짐작할수 있는데 特히 一人稱代名詞에서 主格形과 斜格形에서 이러한 것은 共通的인 現象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同一한 「나」自身이라도 어떤 動作의 主體가 된 「나」와 「어떤 動作의 影響을 받는 나」와의 사이에는 心理的인 差異가 생길 것이 當然하다. 따라서 이러한 心理的인 差異를 하나 하나 個別的으로 表現하려는 것이 言語에 反映된 것이라 하겠는데 特히 이때 두 경우의 「나」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의 名詞로서 表는되는 充分히 抽象化된 意味가 아니라 두 경우의 「나」라는 概念이 充分히 抽象化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蒙古語에서 na-는 主格形에 對한 補充形이며 이것은 國語의 一人稱代名詞와 同一한 것으로 보아 옳을 것이다. 이처럼 補充法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서 우리는 蒙古語의 斜格形語幹이 na-이며 同一한 代名詞에 相異한 語幹이 두개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國語의 na-를 蒙古語

의 na-에 漠然히 比較하는 것보다는 蒙古語의 na-가 主格形인 bi와 起源的으로 密接한 關聯性을 가진 語였으리라는 點에서 이러한 國語의 「나」와 對照할때 一層 뚜렷히 比較의 可能성이 높아진다.

V. 結 語

三章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補充法이 發生하는 現象은 人類에게 共通된 心的過程下에서 일어나는 것이라하겠고 이러한 共通的인 現象이 여러 言語에 共通的으로 反映되고 있다할수 있다. 補充法의 發生的인 原因에 關해서는 이미 三章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그것은 古代人들의, 機會의 抽象化度가 不充分하여 여기서 個別的 或은 事件하나하나의 具體的인 表現慾望이 생기게 되는데 起因함을 밝혔다.⁽²⁸⁾ 이것을 補充法의 具體的인 例에 비추워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動詞에 있어서는 가장 代表的인 例가 Malinowski가 말한것과 같은 現在・過去에서 일어나는 것이라하겠다. 그러나 佛語의 aller (je) vais, [(tu)vas, (il)va]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確定的인 原因을 推理하기가 매우 힘들다. 卽「自己 앞을 가다」或은 「앞으로 가다」라는 뜻이 왜 「가다」의 過去를 表示하기에 이르렀는가? — 이런 點은 앞서 筆者가 提示한바 있는 補充法發生의 一般的인 原因으로도 推理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런 點은 앞서 考察한 Malinowski와 같은 方法에 依한 研究에서 說明이 可能해질수도 있었으나 補充法이 發生한 年代가 어느 言語에서도 대단히 오랜 것이고 또한 그것은 特殊한 心理狀態에서 생긴 것이기에 여러가지 難點을 內涵하게 된다. 動詞에 比해서 다른 分野에서는

(28) 여기에 「具體的」이리 함은 가령 「것저」 「들저」라 할 때 所謂 序列・序順의 概念의 抽象化가 不充分하여 그 中 몇가지를 따로 따로 「具體的」으로 表現한다는 뜻이다. 또 알기 쉬운 例를 들면 羅典法에서와 같이 「比較」라는 概念을 경우에 따라선 個別的으로 — 이러한 意味에서 하나하나를 具體적으로 表現한다는 뜻이다.

比較的 容易하게 그 發生的原因을 推測할수 있다. 우선 序數詞의 例를 보면 「첫째」와 「둘째」를 그 以上の 序數詞에서 分離시켜 그것을 따로 表現하는 것이 普通인데 특히 序數詞 1은 大部分이 여러 言語에서 거의 同一한 方法으로 補充되고 있다. 가령 印歐語에서나 알타이語에서 「前, 前方」을 表示하는 語가 序數語로 補充되고 있고 또 序數詞 2는 몇몇 印歐語나, Altai 語에서 「두따르는」或은 「둘申 하나」라는 語가 補充하고 있는 事實을 볼때 우리는 먼저 補充法의 發生的인 原因이 普遍的인 一般性を 內含하고 있는 事實을 알수 있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現象은 共通적으로 序數에서 「첫째」와 「둘째」만을 分離하여 그 以上の 序數와 다른 方法으로 表現하는 原因이 바로 個別的表現에 있다는 點을 말하는 것이라하겠나. 同一한 序例의 概念에서도 가장 앞에 位置하는 「첫째」는 다른 것에 比해서 느껴지는 心的比重이 다르기에 이것만을 따로 表現하려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첫째」의 곧 다음에 位置하는 것을 그 以上の 것에서 分離하여 表現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序列中 가장 앞에 位置하는 것과 그다음에 位置하는 것을 그以外的 것에서 分離하여 個別的으로 表現하려는 것은 結局 同一概念內에서도 느껴지는 心的比重에 依해서 그것을 個別的으로 表現하려는 것이라하겠기에 앞에서 考察한 補充法의 發生的原因은 概念의 未抽象化狀態에서 일어나는 感度の 心的比重에 依한 個別的인 表現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때 說明이 困難했던 動詞에서 일어나는 補充法에도 暗示를 던져준다. 基本形에 對한 比較形 最上形에 關해서도 「좋은」것과 「더좋은」것을, 或은 「나쁜」것과 「더 나쁜」것을 單純한 比較概念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卽 「더 좋은」것은 「좋은」것에 對한 單純히 「더 좋은」것이 아니라 「더 좋은」것은 「좋은」것보다 더 強烈的한 心的印象을 주는 것이여서 이것이 各自獨自적으로 表現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代名詞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

從來 蒙古語學에서는 單數一人稱代名詞에 語源的으로 相異한 語幹이

두개가 있다고 漠然히 말했왔으며 또한 比較研究에서도 蒙古語의 斜格語幹 na-가 國語의 「나」에 一致한다고 漠然히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單純히 이렇게 말해서는 信憑性이 적을뿐더러 特히 蒙古語의 na-와 國語의 「나」에 關해서는 어딘지모르게 不安感을 준다, 特히 屬語의 「나」가 蒙古語의 斜格的인 na-에 一致한다고 보는 點에서.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여러 言語에서 共通적으로 나타나는 補充法現象이 蒙古語에서도 單數一人稱代名詞에서 나타난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봄으로서 bi, na-의 두 語幹이 存在한다는에 아무런 疑心이 일어나지 않게된다. 原始알타이語의 主格形 *bi에 對해서 補充된 斜格語形이 蒙古語에서는 *na-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na-는 主格形인 bi에 對해서 相當 意味上 깊은 關聯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理由에 依해서 國語의 「나」와 比較가 可能하며 또한 兩者를 同一語源으로 볼수 있게되는 것이다. 다만 蒙古語에서 補充形으로 나타나는 na-가 國語에서는 외 主格形으로 나타나는가에 對해서는 斷定을 내릴수는 없으나 兩者의 na가 相互 比較될수 있는 것과 또한 補充法의 觀點에서 볼때 兩者를 同一語源으로 볼수 있는 것만은 確實하다, 그러나 蒙古語의 *na-나 國語의 *na의 起源的인 意味가 或 「사람」을 뜻하는 go. ol. nai와 比較될 可能도 있을런지 모르나⁽²⁹⁾. 現在로선 어떤 斷定을 내릴수는 없다.

(29) Ramstedt는 國語 複數接尾辭 「네」의 比較에서 다음의 말이 用例가 있다. Used in this way, *ŋil* and *ne* may be called "plural signs," but they can as well as be considered independent words.....The noun *ne* orig. "homo" is also found in *naphjen-ne* "masculine-side-man," *njephjou-ne* "femine-side-man, a woman," *irun-ne*, *erusin-ne* "honored man, my father," *anak-ne* (*ana ne*) "a woman," *kjine* "you." (Ramstedt: *A Korean Grammar*, p. 35). Castrén erwähnt, dass in den von ihm untersuchten Dialekten der Plural von Wörtern, die irgendeine Verwandtschaft ausdrücken, mit *-nasal*, *-nahaŋ* gebildet wird.....Hier liegt unter dem *-na*, *-nä* das Wort *nai*, Kor. *nai*, go. ol. *nai* "Mensch," *ma. njalma* "Mensch".....Dieses *nai* erscheint auch in Korea-ischen jetzt *-ne*, als eine Art Pluralzeichen;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äische Sprachwissenschaft*, Bd. II, s. 58).